

## “그 교회 교인수가 엄청나다며?”

제 동기가 대형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단톡방에 올라오는 다른 동기들의 축하와 감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우울 감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 목사보다 뭐가 모자란가.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더 잘했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정체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며 교인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옆의 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더군요. 남들은 앞을 향해 잘만 나가는데, 저만 퇴보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참 한심하지요?

### 무시할 수 없는 말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상(ideal)을 추구하고 끝없이 자기 욕구와 욕망을 이뤄내기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과 의지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좌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을 다른 누군가가 이룬다면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끼는데, 이는 열등감의 2차 감정이다. 열등감은 곧 타인보다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인식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다(아들러, 『아들러 삶의 의미』). 그래서 타인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열등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

다. 재물이 많은 사람도, 막강한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도,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도 열등감을 느낀다. 목회자라고 열등감에서 자유로울까?

교회 크기, 교인수, 감리교회 내 권력 등 물리적·가시적 요소들은 목회자의 열등감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핵심이다. 사람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신앙과 지도력, 교인들을 향한 애정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도 물리적·가시적 요소들을 더 많이 반영하고, 평가에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교회 교인수가 엄청나다며? 교회도 새로 멋있게 짓고... 그렇게 큰 목회를 하시니 목사님도 아주 크신 분이겠네.” 목회자가 이런 말들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을까?

### 내 마음 알기

정신의학자 아들러는 사용 의도와 방법에 따라 열등감이 부정적일 수도,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Praxis und Theorie, der Individualpsychologie, Menschenkenntnis). 즉 열등감을 우월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으로 삼는다면 우월로 나아가는 동시에 인격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서고, 반대로 좌절과 절망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의 인격은 황폐화되고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목회자의 열등감은 목회자 자신과 목회 공동체 발전의 추진력이 될 수도 있고, 역으로 목회자와 목회 공동체 모두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진정한 목회, 즉 교인들을 위한 영혼 돌봄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목회자가 자신의 열등감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어떤 이유로 이 상황에서, 그 대상에게 열등감을 느끼는가’를 면밀히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탐색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며, 그 결과를 내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열등감으로 인한 부정 감정에서 빠져나와 긍정의 삶으로 향하게 한다.

이를 위해 ‘일기 쓰기’를 추천한다. 단순히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술함이 아닌, 일상에서 떠오른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 겪은 감정들을 털어놓으며 마치 나 자신과 대화하듯, 그 어떤 내적 저항이나 방어 없이 스스로 칭찬하고 때로는 반성하며 자기 실체와 솔직하게 조우하는 시간, 진정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면 어떨까.

목회자가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타인이 정해놓은 우월한 목회자의 모습을 자신이 갖추지 못했을 때다. 하지만 이는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목회자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는 목회자 모습’이 있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목회의 우선순위가 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지향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열등감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아닌, ‘나를 우월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고유식 감신대에서 신학(B.A.), 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Th.M)을 공부하고, 독일의 본 대학교(Bonn)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목회상담학과 교수이며, 기독교학과장이다.

고유식 교수  
호서대학교 목회상담학